

대학생 취업지원서비스 현안과 발전 과제

I. 필요성 및 목적

- 국내·외 경제 및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는 청년층의 고용과 취업 유지, 지역 정주의 문제를 국가적 주요 관심사로 부각시키고 있음. 청년층이 진로와 취업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로 이행하는 것은 국가경쟁력과 노동시장의 성과로 연결되는 중요한 과제임
- 대학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에 있어 전공과 일자리 불일치, 학력과 직무 불일치 등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은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인력 활용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음(김진영, 2023).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노동 시장 불균형으로 청년층의 취업 격차도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대학들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졸업자의 취업 및 정주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2024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대학생 또는 졸업생의 비율이 6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이유로는 ‘기술이나 지식 부족에 따른 준비 시간 소요’, ‘전공 또는 관심 분야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 ‘구직활동이 소용없는 것 같아서’ 등이 제시됨
- 대학졸업자의 취업 성과는 개인의 역량과 취업 노력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제공하는 취업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음(윤지영, 임정연, 2020; 모영민 외, 2019; 유현숙, 조영하, 2005). 취업 캠프, 채용 설명회, 취업 상담 등 대학이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들이 대학졸업자의 취업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천영민 외, 2021)
- 따라서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어, 대학생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졸업 후에도 개인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 본고에서는 대학졸업자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고, 대학생 취업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안 및 발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이를 통해 청년 고용과 지역 정주를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II. 자료 수집

- 대학졸업자 취업 현황은 대학정보공시자료 졸업생의 취업 현황(2025.6.9 인출) 자료를 활용함
- 대학생 취업지원서비스 현안과 발전 과제는 전문가집단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하였음. 대학생일자리플러스센터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실무 전문가 5인을 전국대학교취업관리자협의회로부터 추천받아 2025년 5월 29일과 30일 전문가집단면담을 실시하였음

〈표 1〉 분석 자료

구분	내용	자료
대학졸업자의 취업 현황	• 2015년~2023년 졸업생의 취업 현황 ※ 분석 대상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 취업률 = 취업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1인창업자, 프리랜서) / {졸업자-(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외국인유학생, 제외인정자)}*100 ※ 건강보험연계 취업률=취업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졸업자-(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외국인유학생, 제외인정자)})*100	대학정보 공시자료 (인출: 2025.6.9)
대학생 취업지원서비스 현안과 발전 과제	• 대학 취업지원서비스 실무전문가 집단 면담 ※ 전국대학교취업관리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5개 대학 취업지원팀(과)의 팀장(과장)과 전문가집단면담 실시 ※ 실무 전문가의 요청에 따라 소속 대학명을 공개하지 않음	면담자료

III. 대학졸업자의 취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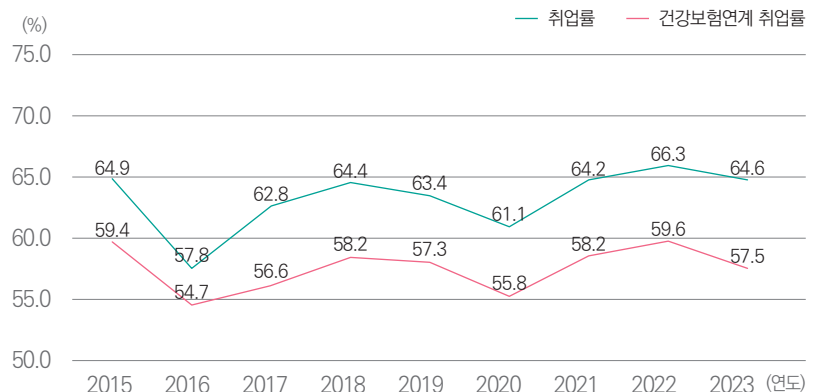
대학졸업자 취업률 추이

- 연도별 대학졸업자의 취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16년에 57.8%로 가장 낮게 나타나며, '23년 64.6%로 증가 추세를 보여줌. 건강보험연계 취업률은 전체 취업률보다 낮으며, 연도별 추이는 유사하게 나타남

〈표 2〉 대학졸업자 취업률 추이 (단위: %)

연도	취업률	건강보험연계 취업률
2015	64.9	59.4
2016	57.8	54.7
2017	62.8	56.6
2018	64.4	58.2
2019	63.4	57.3
2020	61.1	55.8
2021	64.2	58.2
2022	66.3	59.6
2023	64.6	57.5

출처 : 대학정보공시(2025.6.9.인출)



〈그림 1〉 취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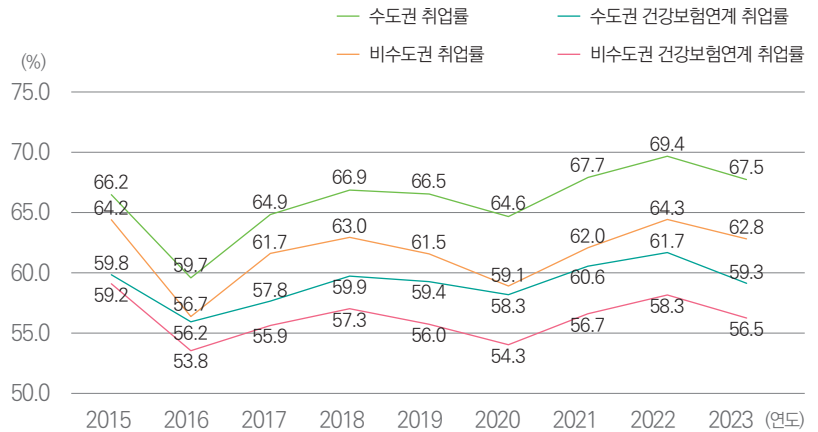
지역별 대학졸업자 취업률 추이

- 지역별 대학졸업자의 취업률 추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23년 기준 수도권의 취업률은 67.5%, 비수도권의 취업률은 62.8%로 비수도권의 취업률이 낮게 나타남
- 건강보험연계 취업률 역시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남

〈표 3〉 지역별 대학졸업자 취업률 추이 (단위: %)

연도	수도권		비수도권	
	취업률	건강보험연계 취업률	취업률	건강보험연계 취업률
2015	66.2	59.8	64.2	59.2
2016	59.7	56.2	56.7	53.8
2017	64.9	57.8	61.7	55.9
2018	66.9	59.9	63.0	57.3
2019	66.5	59.4	61.5	56.0
2020	64.6	58.3	59.1	54.3
2021	67.7	60.6	62.0	56.7
2022	69.4	61.7	64.3	58.3
2023	67.5	59.3	62.8	56.5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비수도권: 그 외 지역
출처: 대학정보공시(2025.6.9.인출)



〈그림 2〉 지역별 취업률 추이

전공계열별 대학졸업자 취업률 추이

- 전공계열별 대학졸업자의 취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23년 기준 의학계열 94.8%, 자연과학계열 68.3%, 공학계열 66.5%, 예체능계열 64.5%, 인문사회계열 60.7% 순으로 의학계열이 가장 높으며, 인문사회계열이 가장 낮게 나타남
- 건강보험연계 취업률은 '23년 기준 의학계열 94.0%, 자연과학계열 62.8%, 공학계열 62.4%, 인문사회계열 54.2%, 예체능계열 44.4% 순으로 의학계열이 가장 높으며, 예체능계열이 가장 낮게 나타남
- '15년 대비, '23년 인문사회, 공학 계열에서 취업률 감소가 나타남

〈표 4〉 전공계열별 대학졸업자 취업률 추이

(단위: %)

연도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취업률	건강보험연계 취업률	취업률	건강보험연계 취업률	취업률	건강보험연계 취업률	취업률	건강보험연계 취업률	취업률	건강보험연계 취업률
2015	61.3	56.6	61.0	43.5	67.5	63.3	70.9	68.3	91.3	89.4
2016	55.1	52.3	50.2	40.8	60.5	58.2	63.2	61.5	89.1	88.4
2017	58.7	53.2	60.9	42.0	66.6	62.0	67.5	64.1	91.9	90.0
2018	60.2	54.6	61.8	43.4	68.5	64.1	69.1	65.7	92.6	90.9
2019	59.0	53.7	62.0	43.6	68.1	63.8	66.8	63.3	94.2	93.7
2020	56.7	51.8	59.8	44.5	66.2	62.2	64.3	61.2	94.4	93.5
2021	60.1	54.6	64.8	47.4	67.9	63.3	66.5	63.1	94.7	93.9
2022	62.0	55.9	66.1	46.5	69.6	64.4	69.5	65.8	93.9	92.8
2023	60.7	54.2	64.5	44.4	68.3	62.8	66.5	62.4	94.8	94.0

출처: 대학정보공시(2025.6.9.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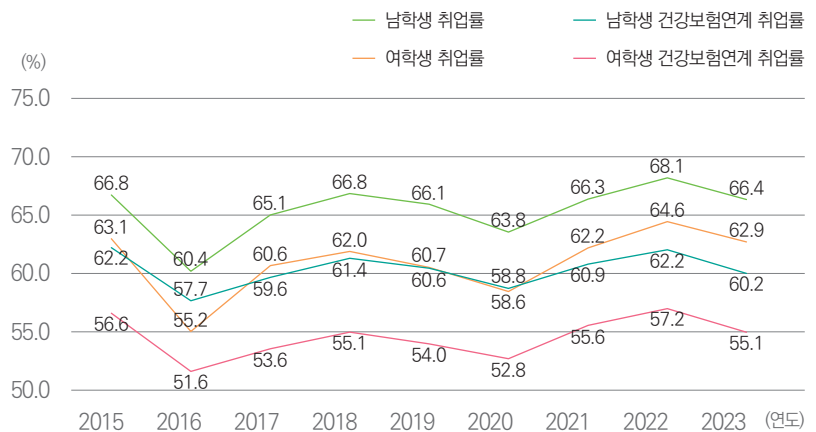
성별 대학졸업자 취업률 추이

- 성별 대학졸업자의 취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23년 기준 남학생의 취업률은 66.4%, 여학생의 취업률은 62.9%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취업률을 보여줌
- 건강보험연계 취업률 역시 '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취업률을 보여줌

〈표 5〉 지역별 대학졸업자 취업률 추이 (단위: %)

연도	남학생		여학생	
	취업률	건강보험연계 취업률	취업률	건강보험연계 취업률
2015	66.8	62.2	63.1	56.6
2016	60.4	57.7	55.2	51.6
2017	65.1	59.6	60.6	53.6
2018	66.8	61.4	62.0	55.1
2019	66.1	60.6	60.7	54.0
2020	63.8	58.8	58.6	52.8
2021	66.3	60.9	62.2	55.6
2022	68.1	62.2	64.6	57.2
2023	66.4	60.2	62.9	55.1

출처 : 대학정보공시(2025.6.9.인출)



〈그림 3〉 성별 취업률 추이

종합

- 대학졸업자의 취업률 현황을 살펴보면, '23년 전체 취업률은 64.6%로 건강보험연계 취업률보다 약 7%정도 높게 나타남. 그 차이는 해외취업, 농림어업 종사, 개인창업 또는 창업 등의 취업자 비율을 의미함. 지역, 전공, 성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비수도권,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여학생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취업률 격차가 '1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그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 및 심층 분석이 요구됨

IV. 대학생 취업지원서비스 관련 재정지원사업 현황

대학생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학의 모든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청년 특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사업임. 대학의 재학·휴학·졸업 유예·졸업생, 타대학생 및 고등학교 이하 졸업 청년을 포함한 지역 청년까지 만 15세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센터별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지역산업 특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
- '24년 기준 전국 121개교가 대학생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했으며, '25년 2개교를 추가 선정하였음('25년 사업예산 364억)(고용노동부, 2025a,b)
 - (지원 프로그램) ▲취업 상담 및 특강, ▲AI 모의면접, ▲현직자 멘토링, ▲취업스터디, ▲직무박람회, ▲목표기업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특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교내 추천채용 정보 제공, ▲지역 우수기업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 등



- 거점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4년 기준 총 49개소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산업·지역 특성을 반영한 취업 프로그램인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함
 -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 바이오제약 마케팅영업 직무교육, ▲ 반도체 공정실습, ▲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과정, ▲ 산업별(기계, 전자, 화학, 유통, 중견기업 등) 취업맞춤반 운영 등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대학 재학생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1:1 상담을 기반으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저학년을 위한 '빌드업 프로젝트' 및 고학년을 위한 '점프업 프로젝트'로 구성됨
- '24년 기준 전국 64개교에서 운영했으며, '25년 11개교를 추가로 선정하였음(고용노동부, 2025a,b)
- 빌드업 프로젝트
 - 빌드업 프로젝트는 1:1 심층 상담과 잡케어를 활용한 진로탐색, 적합 직업 추천, 추천 직업을 토대로 희망직업 포트폴리오 설정. 취업을 위한 중·장기 전략, 설정된 진로에 맞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프로그램 수강으로 이루어짐
 - (프로그램) ▲ MBTI 취업진로 집단상담 ▲ 직업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 자기주도 직업체험을 위한 동아리 활동 ▲ 졸업생 멘토와 직무탐색, ▲ 직무박람회 ▲ 파워포인트, 포토샵&일러스트, 엑셀 실무과정 등
- 점프업 프로젝트
 - 점프업 프로젝트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디지털 훈련·일 경험 연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함. 1:1 상담을 바탕으로 희망 직업을 위한 개별 취업활동계획을 안내하고, 그에 따라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 '25년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도입, 총 120개 대학이 선정됨(고용노동부, 2025a)
-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은 선제적으로 미취업자를 발굴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안내하며,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과 지역기업의 구인 수요에 맞는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함. 졸업생이 요청한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컨설턴트를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함

V. 대학생 취업지원서비스 현안과 발전 과제

- 대학생 취업지원서비스 현안과 발전 과제는 실무전문가 집단면담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취업준비기간의 장기화와 '쉬었음' 학생 증가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의 변화 필요

- 2024년 대학생취업인식도조사(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대학생의 37.1%가 취업준비기간을 1년 이상으로 장기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원인으로는 취업에 대한 기대와 취업가능성 간의 괴리 증가, 취업 의지 및 취업에 대한 낮은 동기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대학 졸업 직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전문가들은 대학졸업자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대학 외부에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졸업생의 취업 준비 성향을 반영하여 졸업자를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대학 성과 평가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졸업한 이후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트렌드예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가기 위해서 2년~3년을 준비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6개월에 그냥 작은 기업에 가라고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해야 하는데, 지역에서 취업 가능한 취업처는 낮은 임금, 젊은 세대가 선호하지 않는 근로환경, 공장 같은 분위기 이런 이유로 취업 알선을 하여도 성사가 되지 않고, 빠른 퇴사로 이어집니다.”

“백수가 되었을 때, 심리적으로 도태되지 않고, 다시 취업 준비를 위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 이 고민을 같이 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대학으로는 부끄러워서 안 들어오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얼마 몇 년 하다가 ‘쉬었음’ 학생이 되는 거죠. 이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센터, 아니면, 앵커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정주취업률을 위한 지역 통합 취업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

- 지역 인구 감소, RISE 체계 도입 등으로 지역 기업과 기관의 취업 연계를 위한 협력 사업이 증가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역 정주취업률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정주취업률을 둘러싼 학생, 대학, 지역의 이해가 달라 취업률 제고의 어려움이 대두되어 왔음
- 학생이 추구하는 일자리와 지역에서 제공 가능한 일자리 수준의 미스매치, 미래 전략 산업의 발전 속도와 현실적인 고용 가능 시기 간의 미스매치, 대학 간 취업률 경쟁 구조에 의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한계 등이 나타남. 이는 지역 통합 취업지원서비스 체계 구축과 성과 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함

“○○시 관점에서는 전략 산업이 분명 있어요. 장기 전략으로 ○○산업 키워서, 최적화 도시로 만들겠다는 전략, 대학도 인재 육성 해 달라 그런데, 언제 고용이 창출되느냐, 현실적으로 고용 창출 시점이 언제냐는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저희는 지자체에 줄기차게 고용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지역 거버넌스 관점에서, 만약, 저희 대학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취업을 아주 잘 하게 하고 있다면, 그 프로그램을 지역 청년들한테 풀까요? 지금 상황은 자기 대학 취업률이 우선이기 때문에, 현재 지역 내 공유, 협업 이런 것이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경쟁사와 기술을 공유하라는 의미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의존도 심화에 따른 행정부담 경감 및 대학 자체 취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필요

- 대학 내 취업지원 부서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고, 예산 및 인력은 대부분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재정지원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학생 취업지원서비스 운영에 있어, 대학에 따라 전문 인력 수급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문제, 프로그램 유지와 취업 관리 등의 어려움이 나타남. 또한 전문가들은 재정지원사업이 요구하는 성과 지표가 다양하고, 제반 행정 업무가 많아 실질적인 학생 지원 여력이 부족함을 지적하였음
- 대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외부 기관 및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에는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그러나 취업 지원 부서원의 인사이동, 계약 만료 등으로 취업지원업무가 단절되는 경우가 나타남. 따라서 취업지원인력의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대학이 자체적으로 취업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부서원이 〇〇명 중에 1명을 제외하고 정규직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다른 부서로 전근하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로 취업 부서에서 여러 가지 재정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사업마다 평가지표는 다르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만 해도 e나라도움을 써서 행정 업무가 너무 많고, 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도 프로세스 자체가 행정 부담이 높아서, 실질적인 진로취업지도에 쓰이는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든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사업들에 요구되는 정량 지표를 채우고, ‘우수’를 받기 위해서 매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요구 사항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취업지원서비스의 전공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성적 지표 평가 필요

- 취업률, 프로그램 운영 건수 등이 대학의 취업지원 역량을 대표하는 성과 지표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정량적인 실적 평가는 다양한 대학의 학생 및 환경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 정량적 지표 달성을 위하여 취업이 잘 되는 전공, 학생이 많은 전공을 중심으로 취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함. 이러한 현상은 취업률 낮은 전공이 지원서비스에서도 배제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대학이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 학생들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도 정량적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다양한 정성적 지표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함

“저희 대학의 경우는 〇〇분야 지역 인프라가 좋고, 선배도 많고, 멘토링도 가능하고, 커리큘럼 짜서 지원 하는 것도 쉬워서,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학생 모집도 100명은 기본으로 오니까,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만 확대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 마이너 학과를 생각하는 배려 자체가 어렵다!”

“이 취업률 평가의 부작용이 뭐냐 하면 중소형 대학들은 어쩔 수 없이 대학 경쟁력 때문에 취업 잘 되는 학과만 살려놓거나, 취업 잘되는 학과를 중심으로 서비스 지원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소위 가성비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요.”

대학 취업 통계 작성 기준 및 권한 등의 제도 개선 필요

- 대학이 졸업자의 취업 현황(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을 필요시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취업 현황 파악이 어려움. 취업지원서비스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졸업자의 취업 정보 확인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함. 다만, 학생의 개인정보활용과 관련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취업 준비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취업자 집계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학생과 대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나오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대학의 졸업생 취업 현황을 알아야 그것에 맞춰서 지원을 할 수 있을 텐데,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예요. 알음알음 조교들을 통해, 자체 조사를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VI. 결론 및 제언

- 대학졸업자의 취업률 현황을 살펴보면, 비수도권,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여학생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대학생 취업지원서비스 전문가면담 결과 역시 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됨. 비수도권의 노동시장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취업가능한 일자리 직무가 학생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음에 따라 대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준비기간이 장기화되고, '쉬었음'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노동부의 대학생일자리플러스센터, 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졸업생 맞춤형 프로그램과 함께 지자체의 취업지원 재정지원사업이 증가하는 등 대학생 및 청년층 취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어 왔음. 이에 따라 대학은 지역의 우수 기업을 찾아내고,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취업에 필요한 교육 훈련, 상담, 경력 관리 등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대학졸업자 취업은 학생의 취업의지와 진로성숙도 등의 개인 역량과 대학교육 및 진로취업지원서비스, 지역의 산업 특성과 고용 현황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됨. 따라서 청년층의 고용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대학생 취업지원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학과 교수, 지역과 정부 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할 것임
- 지역 소멸 위험에 따른 정주 취업을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별 재정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 통합 재정지원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한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각 대학들이 재정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취업을 경쟁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 공유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동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재정지원사업 성과 지표와 취업을 제고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한 학과 또는 전공 분야의 취업지원서비스 쏠림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소외되는 전공 분야와 학생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대학졸업자의 취업률 현황 역시 인문사회·예체능 계열과 여성이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노력이 요구됨
- 따라서 미래 세대 청년층의 고용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생의 취업준비 양상, 전공 분야와 대학의 특성, 지역과 산업 트렌드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토대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대학이 청년층 고용 안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국가와 시·도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 통합 취업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임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5a) 공고 제 2025-105호
- 고용노동부. (2025b) 공고 제 2025-173호
- 김진영. (2023). 대졸자 취업 미스매치의 변화: 전공계열, 대학소재지역, 유보임금의 영향, 산업관계연구, 33(1), 23-46
- 모영민, 김남식, 이인서. (2019). 대학입학전형과 대졸자의 취업 프로그램 참여가 취업성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문화연구, 25(5), 171-197
- 유현숙, 조영하. (2005). 고등교육기관졸업자의 전공일치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연구. 한국교육, 32(4), 223-244.
- 윤지영, 임정연. (2020). 4년제 대졸자의 진로 및 취업준비행동이 첫 일자리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8(4), 181-212
- 천영민, 변정현, 양지윤, 김하영, 김영은, 이장희. (2021). 대학 취업지원서비스 이용 현황과 성과, 한국고용정보원(기본연구 2021-17)
- 한국경제인협회. (2024). "2024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보도자료(2024.10.29.), 한국경제인협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5). 대학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 대학 및 대학원